

2014년도 봄학기

생물해양학 및 실험

(제주도 현장실습)



함께한 사람들

김종성				
송성준	박진순	권봉오		
홍성진	김수호	배한나		
전승연	백주원	윤정현	황지운	
신지현	최주희	조우현	김성중	이훈은
이은주	박의준	안호석	김지은	



서울대학교 해양저서생태학연구실 김종성

목 차

1. 제주탐험기 (글: 김종성)	4
2. 현장실습 후기 (글: 전승연)	7
3. 우리들의 제주이야기	
3-1. 생명과학부 08 최주희.....	13
3-2. 지구환경과학부 09 박의준.....	19
3-3. 지구환경과학부 09 백주원.....	25
3-4. 지구환경과학부 10 조우현.....	31
3-5. 생명과학부 10 이홍은.....	36
3-6. 지구환경과학부 10 김성중.....	43
3-7. 지구환경과학부 11 김지은.....	50
3-8. 지구환경과학부 10 안호석.....	56
3-9. 지구환경과학부 12 황지운.....	62
3-10. 지구환경과학부 12 윤정현.....	66
4. 채집 후 수업 활동	
4-1. 1조 (계류).....	72
4-2. 2조 (군부류)	75
4-3. 3조 (고등류).....	78
5. 추억 한장, 두장 (사진: 박진순/이은주, 글: 전승연)	81

1. 제주탐험기

바다는 더 알아갈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지는 참 이상한 친구다. 바다의 무한한 신비로움에 비해 인간이 가진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일 게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나 할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시 **'제주행'**을 택했다. 작년 이맘때 생물해양학 실습 차 제주 종달리와 우도를 다녀온 뒤 1년만이다. 올해 생각해 둔 실습지는 제주 혹은 울릉도였는데, 학생들의 만장일치로 제주행을 택했다. 사실 이제 제주는 맘 먹기에 따라 쉽게 여행갈 수 있는 곳이지만, 야외조사로 찾는 제주바다는 좀 다른 느낌, 자연의 신비로움을 찾아 나서는 **모험의 길**이라고나 할까?

하여간, 이번 제주실습의 목적은 사방이 막힌 강의실에서 벗어나 온 세상이 한 눈에 들어오는 자연, 우리바다를 맘껏 보고, 만지고, 맛보고, 또 즐기고, 느껴보는 것이다. **생물해양학**을 수강하는 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지는 모르겠으나, 학생들과 가장 많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다. 아직도 진로가 불투명한 몇몇 학생들에게 바다공부의 재미와 의미를 무차별적으로 불어넣어주고 싶은 선생의

마음을 듬뿍 담아, 올해도 제주행을 택했는데....

역시 **훌륭한 선택**이었다.

바다의 **생태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바다생물의 종류와 역할은 소위 생물다양성으로 표현하는데 그 가치를 과학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다가 그리고 바다생물이 자연과 인간에게 주는 무한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즉, 바다를 **사회생태시스템**으로 이해하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때라 하겠다.

그 동안 우리 인간은 바다를 이용과 개발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다. 무분별한 토지개발이나 쓰레기무덤으로 희생되어 온 바다를 이제는 되돌려놓아야 한다. 바다이용의 비전은 우리의 바다생태계를 원시상태에 가깝게 되돌리려는 **복원** 노력,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가꾸고 보살피는 실천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제주의 바다는 우리만의 바다가 아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는 태초의 바다스러운 아름다움을 간직한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보고임에 틀림없다.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후 제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바다와 제주의 바다생물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이에 못 미치고 있어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하여간 1년 만에 다시 찾은 제주의 종달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유쾌한 **대자연**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선물해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항공편이 연착되어 학생들이 조금 힘들었지만 즐거움 가득 무사히 돌아온 보람찬 제주행이었다.

주희, 의준, 주원, 우현, 홍은, 성중, 지은, 호석, 지운, 정현과 우리 연구실 식구들 모두의 추억과 기억을 오래 닦고자 **'제주탐험기 2탄'**으로 남긴다.

모두 수고했다!!!



<제주 종달리 해변에서 단체로 만~세>

<글: 대장>

2. 현장실습 후기



<종달리 해변>

2014년 5월 9일, 생물해양학 수업 야외조사를 위해 제주도로 떠났다. 평소에는 참 좋아라 하는 제주도지만, 나름 조교라고 걱정 반, 기대 반인 마음으로 떠났다.

후발대로 출발해서 7시쯤 숙소에 도착했는데, 생각지 못한 환대(?)에 감동받아서 저녁도 정말 맛있게 먹고, "철컹, 철컹"등의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깊은 밤까지 모여 신나게 웃었던 것 같다😄



<종달리 해변에 서식하는 생물들>

다음 날! 본격적인 생물채집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조를 나누어 종달리 해변 채집에 나섰다. 나름 채집을 많이 다니는 대학원생으로써도 흔하게 볼 수 없었던形形色색, 다양한 모양의 생물들이 곳곳에 보여 신기한 마음에 소리 잘 지르기로 유명한 우리 조 지운이와 함께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

종달리 해변에서 뜰채로 해조류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물고기와 새우도 잡고, 징그럽지만 다양한 균부의 모습에

놀라고, 1박 2일에 강호동이 맛있게 먹어서 유명해진 거북손도 잡고, 돌을 들추면 도망가느라 바쁜 게도 잡고!



<종달리 해변에 서식하는 생물들>

돌 사이에 숨어있는 고둥,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뱀고둥 등 다양한 생물을 채집하는 재미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

약 2시간의 아쉬운 채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생물을 썩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 연체동물, 절지동물, 기타 등으로 나누어 담고 알코올을 부어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날 저녁에는 회, 멧게, 매운탕, 꽃게라면 등을 먹었는데, 맛있는 음식과 함께 (호석아 매운탕 맛있었어^^) 학부생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날은 채집을 다녀와서 굉장히 피곤했는데 자리를 떠나기 아쉬운 학생들은 곳곳이 자리를 지키다가 박박사님께 사진 찍히고 방으로 흩어져야만 했다.



<새벽 2시 30분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들>

드디어 2박 3일 일정의 마지막 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비행기가 결항되어 집에 갈 수 없게 되었다.

박사님들과 학생들은 아시아나 였고, 우리는 부산에어 였는데.. 부산에어는 심지어3대나 뺏다.. 뭐지?

결항을 받아들이고 다시 렌터카와 숙소를 찾아 짐을 넣은 후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언제 결항이 돼서 짜증이 났었냐는 듯 마치 어제와 같이 즐거웠다. 돌아가는 길에 우현이가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것에 놀라고, 흥은, 주희언니, 지운이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비행기 결항으로 인해 일정이 3박 4일로 길어졌지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함께해 설레고 즐거운 채집이었다.👉

수업은 곧 종강하지만 이번 제주도 채집이 모두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글: 전승연>

3. 우리들의 제주이야기

3-1. 3박 4일간의 제주도 야외조사를 마치고

5월 9일 오전 9시, 인천공항에서 인솔 조교님과 선발대를 만나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생물해양학 첫 수업시간에 야외조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기대하고 있었던 터라 더욱 설렘이 컸다. 제주도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로 갈치조림을 먹고, 공항에서 가져온 지도를 살펴보다가 김녕미로공원과 섭지코지를 둘러보기로 결정했다. 미로공원에서는 2명, 3명, 3명으로조를 나누어 미로 탈출하기 내기를 했는데 결과는 우리팀 승리!! 아이스크림을 먹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뒤 섭지코지로 이동했다. 섭지코지는 분화구라고 하는데, 붉은 화산재로 만들어진 언덕을 올라가니 성산일출봉을 볼 수 있는 등대가 있었다. 그리고 해변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웠던 대상분포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다.

두 번째 날은 이번 여행의 목적인 종달리 해변 야외조사가 있는 날이었다. 아침으로 전복죽을 먹고 숙소 앞에 모여 간단한 자기소개와 조 편성을 하였다.



<미로공원에서>

숙소에서 아주 가까이 위치한 종달리 해변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채집에 앞서 아쿠아슈즈로 갈아신고 준비운동을 한 뒤 뜰채와 핀셋을 비롯한 준비물을 챙겼다. 박사님께서서는 실험시간에 표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크기가 크고 다양한 생물을 채집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평소에는 자세히 관찰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 중에서도 포도고둥, 눈알고둥, 밤고둥, 구멍삿갓조개는 이름과 꼭 닮은 모양이라 더 재미 있었다.



<종달리 해변 뱀고둥>

어떤 지역에서 말려서 먹기도 한다는 군소는 토끼처럼 생긴 모양에 보라색 물을 내뿜어서 신기했다. 교수님께서 큰 바위 아래에 다양한 생물이 많다고 알려주셔서 여럿이 바위를 들어올리니 큰 게와 여러 가지 고둥을 발견할 수 있었고, 어떤 바위 아래에서는 멍게가 아주 많이 분포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뜰채를 바닥에 거의 닿게 쓸어 올리니 해조류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작은 물고기와 새우를 채집할 수 있었다. 바위 틈에 있는 크기가 작은 고둥은 핀셋을 이용하여 잡았고, 거북손은

파도가 강한 곳이라 그런지 단단하게 부착하고 있어서 떼어내기가 어려웠다. 수업시간에 옆으로 가지 않고 앞뒤로 가는 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관찰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시간이 짧아 아쉽게 느껴졌던 채집을 마치고 해물짬뽕과 탕수육을 먹었는데 짬뽕은 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홍합, 게, 새우가 올려져 있었다. 점심을 먹은 후 성산일출봉에 오르니 제주도 모습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었고 멀리 한라산까지 보였다.



<채집하고 있는 모습>

등대까지 올라가 바람을 쐬다가 다시 해변에 내려가 갯강구와 계를 관찰하였다. 숙소로 이동한 후 채집한 생물을 연체동물과 절지동물로 분류하여 알코올이 담긴 용기에 넣는 작업을 하였다. 이동하는 동안 같은 용기에 넣어두었던 계는 집게다리가 떨어진 것이 많아서 안타까웠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알코올 고정 후에 생물이 표백되어서 표본을 만들었을 때 원래의 색보다 약간 연해진다는 것도 아쉽게 느껴졌다.

셋째 날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강한 바람으로 인한 결항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렌트카를 타고 새로 예약한 숙소로 이동하였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당황했지만 다음날은 다행히 기상상황이 나아져서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번 야외조사를 통해 다양한 해양생물이 많기로 유명하다는 곳에 가서 직접 생물을 채집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연체동물과 절지동물의 이름도 많이 알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생명과학부 08 최주희>

3-2. 제주도 바다에서 해양생물을 외치다

2014년 5월 9일 ~ 12일까지 3박 4일간 제주도 종달리 지역으로 생물해양학 수강생들과 조교 및 박사님들과 함께 해양생물 채집 및 분류하는 공부를 위한 필드여행을 다녀왔다. 원래 계획은 11일까지 2박 3일간이었지만 11일 제주도에 심한 강풍으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하루 더 있다가 오게 되었다(결항 관련 내용은 뒤에.....).

첫째 날 나는 후발대 출발로 오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게 되었다. 수강생은 나와 지은이 둘이었고 후발로 출발한 조교들과 같이 비행기를 탔다. 후발대로 출발하다 보니 첫 날 오후 일정은 거의 참가하지 못했고 저녁 식사에 뒤늦게 가서 식사를 하였다. 첫 째날 저녁 식사는 고기를 구워먹었는데 제주도에서 유명한 흑돼지를 구워먹는다는 생각에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다. 사실 나는 해양 전공을 많이 듣지 않아서 처음 보는 사람도 많고 어색하게 느껴졌었는데 첫 째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져서 이후의 일정이 심심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둘째 날 아침에는 전복죽으로 유명하다는 오조해녀의 집에서 단체로 전복죽을 먹었다. 예상보다 많은 양에 꽤

놀랐던 기억이 난다.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우리는 종달리 지역으로 출발하여 생물 채집을 할 준비를 하였다.

신발도 아쿠아 슈즈로 갈아 신고 빠트릴 위험이 있는 핸드폰은 안전하게 보관한 뒤, 준비운동을 하고 각자 정해진 조끼리 모여 바닷가로 나갔다. 바닥에는 제주도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무암 암석들이 깔려있어 걸을 때에 조금 발이 아프기도 하였다. 하지만 암석이 많아 생물 채집이 처음인 나도 꽤 많은 생물을 채집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던 것 같다. 모래질이었다면 생물들이 모래를 파고 들어가서 찾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다. 생물을 채집하는 법은 간단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닥을 잘 살펴보다가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잡아 봉투에 넣으면 되었다. 잘 보이지 않는다면 적당한 크기의 암석을 뒤집어 뒷면을 관찰하면 많은 생물이 나온다는 것도 배웠다. 김종성교수님께서 소쿠리를 바닷물 속에 담갔다가 잘 흔들어서 걸러내면 그 안에 작은 새우 등 손으로 잡기 어려운 생물도 채집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주셨다. 생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많았다. 가장 많이 본 종류는 고둥 종류였다. 고둥에는 조그만 다슬기처럼 생긴 땡가리가 꽤 많았고, 걸이 딱딱하지 않았던 포도고둥과 안

쪽 구멍이 반원 모양이었던 갈고둥, 안 쪽 구멍 부분에 하얀 반점이 찍힌 밤고둥, 걸 표면에 벽돌과 같은 무늬가 나있는 울타리고둥 등을 채집하였다. 또한 바위에 강하게 달라붙어 있어 끈을 이용하여 떼어내야만 채집이 되는 군부류도 채집하였는데, 주로 육대에 과립과 같은 것이 달려있는 군부, 조그만 털 멍치들이 달려있는 털군부, 크기가 작고 육대가 위 쪽 방향에서 잘 보이지 않는 연두군부를 채집하였다. 절지동물도 매우 많았는데, 납작게 등 게 종류와 고둥 등의 빈 껍질 속에 살아가는 집게 종류, 물 안에서 투명하여 거의 보이지도 않는 것으로 느껴졌던 새우류 등이 있었다. 채집할 당시에는 잘 모르는 것도 일단 신기하면 채집을 해서 가져왔던 것 같다. 점심 때는 제주도에서 유명한 중국집에서 해물짬뽕을 먹은 후(양이 매우 많았다. 나중에 나온 몇 명은 새우가 올라오지 않아 울상을 짓기도.) 성산 일출봉에서 제주도의 풍경을 관람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에서 오전 중에 채집하였던 생물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생물이 채집하고 운반하는 도중에 죽고 썩어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최대한 서둘러 연체동물, 절지동물로 분류한 다음 알코올에 담가 고정을 시켰다.

알코올에 넣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은 죽이고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다. 이 때에 생물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면서 여러 가지 고등을 분류하는 법, 군부와 절지동물들의 종류 등을 배웠다.

저녁에는 수산시장에서 꽤 싼 값에 회를 사서 모든 인원이 모여 다 같이 회를 먹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생물채집 필드여행은 이렇게 평온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했다.

다음 날(셋 째날) 아침에 식빵과 잼, 마가린, 우유 등으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한 후 비행기를 타기 위해 제주 시내로 갔다. 점심을 제주도에서 유명하다는 고기국수를 먹었다. 다들 전날 술을 마신 후 아침에 토스트를 먹고 니글거리는 속을 풀어내는 분위기였다. 렌터카를 반납하고 공항으로 가는데 바람이 범상치 않았다. 공항 옆에 심어진 야자수들이 꺾일 듯이 흔들렸고 공항에 사람들이 매우 많이 붐벼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들어가보니 우리가 타는 항공편은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결항되고 있었고 언제 풀릴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제서야 뉴스를 확인해보니 제주도 해상에 강풍주의보, 풍랑주의보,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고 대부분의 비행기가 심한 바람으로 인해 이륙하거나 착륙하지 못하고 결항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결국 우리는 11일 일요일에 서울에 복귀하지 못하고 제주도에서 하루를 더 보내게 되었다. 저녁은 김치찌개를 먹었으며 공항 근처에 다시 숙소를 새롭게 잡고 하룻밤을 더 묵게 되었다.

12일 월요일 아침이 되어 근처 맥도날드에서 맥모닝으로 아침을 해결한 우리는 새로 예약한 비행기를 기다렸다. 어제 언제 강풍이 불었냐는 듯이 하늘은 아주 맑고 화창하여 약간 원망스럽기도 할 수준이었다. 결국은 2박 3일로 예정되었던 필드여행을 3박 4일로 보내고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험을 많이 한 여행이었다. 해양 전공을 거의 듣지 않았던 나로서는 생물 채집과 분류 등이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그리고 비행기가 전면 결항되어 하루 늦게 서울에 복귀하게 된 것도 (다시 한번 더 경험하고 싶진 않지만)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수확은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친해졌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학기에 기억에 남게

될 필드여행이었다.



<마지막 날 아침 산책하면서>

<지구환경과학부 09 박의준>

3-3. 힘들었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제주도 필드

화창한 날씨와 함께 출발한 생물해양학 제주도 필드. 5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10분 비행기를 타고 김수호 조교님, 주희언니, 성중이, 호석이, 우현이, 흥은이 지운이, 정현이, 그리고 나. 이렇게 총 9명의 선발대는 제주도로 출발했다.



<차 안에서 셀카>

오랜만의 제주도 여행. 들뜨고 기분이 좋았다. 날씨도 우리를 반기는지 너무나도 화창했다. 약 오전 11시경 제주도에 도착한 우리는 렌터카부터 빌리고 우선 허가진

배를 채우러 고고씽~!! 수호 조교님이 미리 알아두신 갈치조림 집으로 갔다. 솔직히 갈치조림이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그리 맛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너무 맛있었다. 다들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밥상으로 머리를 들어갈 정도로 먹기 바빴다. 든든히 배를 채운 우리 선발대는 뒤늦게 오는 후발대를 기다리는 동안 섭지코지에 가기로 했다.

점심을 먹으면서 어디 갈지 이리저리 지도를 보면서 고민한 결과, 숙소에서 가까운 섭지코지로 결정!! 화창한 날씨 가운데 섭지코지에는 많은 외국인들을 비롯한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그리고 따뜻한 햇살은 따뜻하다 못해 덥고 뜨거웠다. 그늘도 없는 길을 그래도 바다 한번 보겠다고 묵묵히 걸어갔다. 바다가 보이는 순간! 어느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다 와! 멋있다! 뜨거운 반응의 연속이었다. 자연이 만든 아름다움. 해변의 아름다움의 절정이었다. 다 같이 해안가로 내려가서 단체 사진도 찍었고, 바닷물에 손도 담가보고, 곳곳에 해양생물들은 없는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 돌, 저 돌 틈 사이를 살펴보기도 했다.

다음 일정은, 드디어 대망의 장보기! 몇 명만 가서

장을 봐왔는데 예산에 거의 딱 맞춰서 장을 보는 놀라운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교수님과 박사님들께서 도착하셨고, 본격적인 저녁 준비에 돌입! 밥을 짓고 상추를 씻고 야외 마당에 숯불을 지피고..... 함께 밥을 해먹는 과정 그 자체가 재미있었고, 그래서 더 맛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고기 굽느라 고생하신 남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밥을 어느 정도 먹고 나니 후발대가 도착하였고, 그들과 함께 또 왁자지껄 술잔을 기울이며 밤을 맞이하였다.



<홍은이와 셀카>

다음날! 본격적인 생물해양학 필드 날이다!! 아침을 전복죽(엄청 맛있었다.)으로 든든하게 채우고 종달리 해수욕장에 도착하여 필드 준비를 하였다. 아쿠아 슈즈를 신고 장갑을 끼고 생물 채집에 쓰일 여러 도구들을 챙겼다. 그 전에! 바닷가이다 보니 준비운동은 필수! 그런데 PT체조를 하던 중 선글라스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선글라스는 깨졌다. 아... 내 선글라스...(결국 서울 올라오는 길, 면세점에서 새로 장만했다ㅠㅠ)

조별로 함께 이동하였는데, 우리 조는 박진순 박사님을 필두로, 홍성진 조교님, 전승연 조교님, 그리고 학부생 지운이, 정현이, 나로 총 6명이 함께 했다.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물을 채집하는지, 생물들은 어디에 잘 숨어있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셨고 그 설명대로 우리는 생물들을 하나하나 채집해나갔다. 돌을 뒤집었는데 수많은 생물들이 붙어있을 때 그 쾌감이란!! 중간중간에 박사님과 전승연 조교님은 새우를 잡기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큰 새우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새우들이 양증맞고 귀엽기도 했다. 꽤 많은 생물들을 채집하였다.

점심은 짬뽕!! 양도 많았고 맛있었다. 다만, 내

그릇에는 새우와 체리가 없어 조금 아쉽긴 했지만 만족!!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성산일출봉을 오르기로 했다. 다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여자 중 일등으로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의 바람은 너무나도 시원했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한라산과 제주도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의준이가 짤막하게 지질학적 지식들을 설명해주기도 했다. 숙소로 돌아와서는 아쿠아 슈즈 등을 정리하고 채집해온 생물들을 종류별로 분류해놓고 알코올 처리를 하였다. 저녁은 우리가 쉬고 있을 동안 조교님들이 회를 비롯한 저녁거리들을 사왔다.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회였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술잔과 함께 한 수다 파티! 제주도에서 함께 밥을 먹고 추억을 나누는 것. 잊지 못할 것 같다.

생물해양학 필드의 마지막 날!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불안했던 사태는 결국 터지고 말았다. 비행기 결항! 오늘 서울로 못 돌아간다. 장시간 공항에서 기다린 끝에 안전을 위해서 그냥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각자 다음날 수업 교수님들께 양해의 이메일을 보내고 급하게 렌터카를 빌리고 숙소를 잡아서

이동하였다. 저녁은 근처 김치찌개 집에서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김치찌개 중 엄마가 해준 거 다음으로 가장 맛있었다. 숙소로 돌아와서는 화요일이 바로 시험이었던지라 공부를 하다가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맥도날드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바로 공항으로 이동했고, 몇 시간 기다릴 끝에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서울로 돌아왔다.

생물해양학 제주도 필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 추억이 있는 필드이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솔직히 비행기 결항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구환경과학부 09 백주원>

3-4.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제주도

대학을 3년 동안 다니면서 많은 과학수업을 들었지만 거의 다 이론만 배우고 과학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의 근본과 이해는 관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와서 실습수업을 더 기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나는 해양생물들을 책으로만 보고 배워왔었다. 이번에 생물해양학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이런 해양생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껴볼 수 있는 해양생물탐구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더욱더 기대가 되었다. 원래 계획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로 일정이 잡혀있었지만, 셋째 날에 기상이 안 좋은 관계로 일정이 하루 더 연장되어 생물해양학 교외 교육을 3박4일로 제주도로 가게 되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도착한 제주도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제주도에 날씨는 서울의 날씨와는 달리 너무나도 따뜻했다. 도착하자마자 갈치조림을 먹고 우리는 제주도 미로공원을 향해 출발을 했다. 미로공원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넓었다. 처음에는 금방 미로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체험을 해보니

생각보다 오래 시간이 걸렸다. 그 후에 향한 곳은 섭지코지였는데 이곳은 세상에 멋진 것들을 축약하여 모아둔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여행을 함께한 친구들과 많은 사진을 남길 수 있어서 좋았다.

하늘이 어두워지자 우리는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바비큐를 만들기 위해 세팅을 했다. 각 조마다 식사 준비를 하고 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흑돼지 삼겹살과 소시지를 맛있게 구워 먹었다. 바비큐를 즐기면서 평소에 얘기 못해봤던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친해질 수 있었다. 호화로운 만찬이었던 만큼 바로 앞에 있는 성산일출봉을 보면서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특별한 경험이었다. 저녁상을 치우고 조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정리했다.

다음날, 전복죽을 먹고 여행의 본 목적대로 해양생물을 채집하기 위해서 리조트 근처에 있는 종달리 해변으로 나갔다. 우리들은 조로 나뉘어서 각자 해양생물을 채집하기 위해 흩어졌다. 우리 조는 생물 다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보급 받은 플라스틱 통에다 각 종을 따로 분리했다. 장갑을 낀 채로 모두가 손으로 암반과 물속을 뒤지면서 고둥, 땡가리, 조개, 군부 등

해양생물들을 관찰해 볼 수 있었다. 평소에 이름만 어렵듯이 들어왔던 생물들을 관찰하고 직접 손으로 잡아보니 색다른 경험이었다. 우리가 채집한 생물에 대해서 권봉오 박사님의 상세하시고 전문 지식이 돋보이는 설명을 듣고서 많은 생물들의 종을 파악하고 분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생물들이 모래 표면보다는 바위 아래에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 있었다. 한 시간 반 동안 다양한 생물들을 채집하고 분리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10종 넘게 채집할 수 있었다. 채집을 마친 후에 에탄올이 가득 찬 플라스틱 통 안에다 샘플을 모두 같이 모아 놓았다.

이번 필드에 가서 해양생물 채집을 직접 해보면서 조간대에 서식하는 생물들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생물들이 어떻게 계속 변하는 환경에서 적응하고 생존하는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왜 높은 밀도로 서식하는지, 또한 조간대 생물다양성은 왜 높은지 등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싶다.

비록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에 비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많은 사람들과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잠시만이라도 서울의 숨 막히고



<종별 분리를 위해 트레이에 쏟은 모습>

답답한 공기를 피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확인해서 생생한 경험을 하여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난 아직도 그때 봤던 푸른 바다나, 검은 바위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나, 해양생물들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 소금 냄새와 함께 나를 스치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진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직접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그 느낌 하나하나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지구환경과학부 10 조우현>

3-5. 시험기간에 생각해보니 꿈 같은 시간 제주도

우선 처음으로 해양생물학과 수업을 들었는데,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 당황했었다. 특히 교수님께서 학생들과의 교류에 힘쓰시고 수업 중에도 재미있게 하는 전공수업은 처음이었다.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맘껏 느낄 수 있던 것이 제주도 야외조사였다.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과 2박3일 간 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걱정되었지만 비행기에서부터 웃고, 얘기하고 처음 걱정이 모두 날라갔다. 사실 김포공항에 혼자 30분이나 지각해서 수호조교님을 게이트 바깥에서 기다리게 해서 되게 죄송했는데 너무나도 쿨하게 괜찮다고 해주셔서 감동이었다. 2박3일 내내 힘드실 텐데 힘든 내색 하나도 안 하시고 즐겁게 운전까지 해주시고 수호 조교님 멋져요*-* 이때 '이런 넉넉함이 해양생물학 특징인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생명과학부에서 갔던 채집에서는 산에서 식물채집을 해서 바닷가에서 무언가 잡는 건 처음이었다. 바다에 많은 생물이 사는 건 알았지만 바위를 뒤집자마자 신기하게 생긴 생물들이 엄청 많아서 놀라웠다.



<채집하는 모습>

예전에는 그냥 바위에 붙어있는 바위의 무늬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끌로 조심하 떼어내니 그게 '생물'이었다니...! 그리고 성중오빠가 잡아온 균소를 처음 봤는데 바다의 토끼(?)라서 그런지 정말 귀여웠다. 만졌을 때도 말캉말캉해서 기분 좋았다. 그런데 잡아가서 에탄올에 담아서 미안해 균소야... 신기하게 생긴 생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정말 유익한 경험이었다.

이번 야외조사에서 감명 깊었던(?) 것은 정말 먹을 게 많다는 것이었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먹으러 갔던

갈치조림!!은 정말 맛있었다. 테이블에 남녀비율까지 맞춰야 한다면 다들 많이 먹겠다고 했던 게 지금도 생각난다. 호석이(??? 아직도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다;;;)가 타과에 와서 수업듣기가 얼마나 힘드냐면서 갈치조림에 있던 무를 먹으라고 계속 떠졌는데 되게 고마웠다. 해양생물과의 따스함인가?? 평소에 자주 먹는 종류도 아니었지만 원산지여서 그런지 진짜로 맛있었다. 지금 글을 쓰기 위해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침이 고인다...쓰읍...평소 짠 음식을 못 먹어서 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전혀 안 짜고 맛있어서 정말 신기했었다!!

그리고 첫째 날 저녁에 바비큐파티!! 정말 맛있었다!! 고기도 제주도산이었지만 특히나 좋은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에 즐겁게 먹어서 더 맛있었던 것 같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와서 예기치 않게 모임에서 제주도산 고기가 나오는 데에 갔었는데 제주도에서 먹었던 바비큐 파티랑 저절로 비교됐었다. 고기를 먹고 그 분위기를 이어 술을 마셔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때 알려지가 난 상태라 술을 마시지 못해서 아쉬웠다. 무려 처음 보는 '한라산' 소주가 있었는데 못 마셔서 너무 아쉬웠다. 살짝 맛만 봤는데 목 넘김이 깔끔해서 더 아쉬웠다. 성중오빠가 생각할 때 제일

맛있는 소주가 '한라산'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가는 한 모금이었다.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전복죽을 먹었다. 메뉴선정을 어떤 분이 했는지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았다. 평소에는 하얀색 전복죽만 봤는데 초록색이어서 신기했다. 조교님이 내장까지 같이 넣고 요리해서 그렇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맛있었다!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도 나면서 힘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침을 깨우는 맛이었다. 소식하는 지운이가 남긴 전복죽이 지금도 생각하면 아쉽다.

야외조사 후에 먹으러 간 짬뽕집에서 짬뽕에 들어간 해산물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 너무 놀라서 계속 안 찍던 사진도 핸드폰으로 직접 찍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다. 원래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만 먹었는데 서울에서도 짬뽕이 이렇게 나오면 맨날 짬뽕만 먹을 것 같았다.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해산물에 주희언니랑 계속 우와~우와~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난다. 정신 없이 먹느라 짬뽕이 나온 이후는 정말 조용했던 것 같다. 특히나 짬뽕집에서 박사님들과 교수님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사님들 정말 귀여우신 것 같다. 지환부 특유의 농담을 계속

하시면서 두 분이 티격태격하시는 모습이 정말 오래된 친구 같아서 보기 좋았다. 주희언니랑 계속 눈빛교환을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난다. 조금 나중에 나왔던 탕수육도 매운 짬뽕을 먹은 이후에 달달하게 입안을 정리해주는 느낌이 났다. 과일 맛이 강하게 나서 상큼하게 끝까지 다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나중에 조교언니들하고 얘기할 때 들어보니 교수님이랑 박사님 테이블만 그렇게 많은 해산물이 나왔다고 한다. 그 많은 해산물의 놀라움을 못 느껴보다니 내가 다 안타까웠다. 박사님들이랑 앉길 잘한 것 같았다^-^

그날 저녁에는 숙소에서 먹는다는 말에 회를 못 먹나 생각해서 내심 아쉬웠었는데 역시 센스 있는 박사님들이 회를 사주셨다. 광어랑 갈치회랑 멍게.....내가 앉은 테이블의 회는 내가 다 먹은 것 같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 남은 회를 보고, 나도 모르게 3일 내내 참고 있던 식신 본능이 튀어나와 남은 회를 다 먹어버렸다. 내 먹는 모습을 보고 수호 조교님이 남은 회를 다 주셨던 기억이 난다. 내 옆에 쌓인 회 접시를 보고 조금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계시던 박사님이 회 '블랙홀'이 누구냐고 말씀하셔서 아주 살짝

더 부끄러웠다. 승연언니가 해양생물 실험실에 들어오면회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서 계속 실험실 설명을 들었다. 정말...들어갈까? 꼭 회 때문은 아니지만 졸업할 때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다. 뭔가 정말 우리 과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 같은 분위기와 넉넉함이 느껴지는 과인 것 같다. 왜 내가 해양생물학과의 매력을 이제까지 몰랐던 걸까? 아니면 김종성 교수님 실험실 분위기가 이런걸까? 해양저서생태학 실험실 짱이에요!

마지막에 공항에서 대기하는 게 조금 지쳤지만 그래도 나름 한번도 못 겪어본 것도 겪고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인 것 같다. 그리고 학부생들보다도 박사님들이나 조교님들이 더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넉넉한 모습으로 안심시켜 주셔서 정말 멋졌다. 그리고 박사님들이랑 수업 외적으로 계속 붙어있다 보니 박사님들이 정말 신기한 경험이나 개인적으로 아는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경험이 많은 건 정말 좋은 것 같다. 특히나 송박사님이 말씀해주시는 것들이 신기하고 어떻게 이런걸 알고 계실까 정말 궁금했다. 경험이 풍부한 남자는 정말 멋있는 것 같다.

지금 생각해도 제주도에서 정말 즐거웠다. 좋은

사람들과 학기 중에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 같다. 많은 것을 배우고 해양생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얻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

<생명과학부 10 이홍은>

3-6. 다시 가고 싶은 제주도

작년 환경해양학 수업을 들으면서 태안으로 채집 실습을 간 적이 있다. 이번에는 좀 더 멀리, 제주도로 채집을 갔다. 위치는 제주도 종달리 해수용장으로, 제주도의 동쪽에 위치한 넓은 해안가였다. 출발하기 전부터 조교님들과 교수님이 생물 종이 정말 다양하다고 하셔서 얼마나 많을지 기대가 되었다. 출발은 선발대와 후발대였는데, 역시 어딜 가든 빨리 가야 제 맛! 그날 다른 수업 시험이 있었지만 미룰 수 있어 일찍 출발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제주도에 많이 와 봤기 때문에 별로 신나지 않았다. 는 아니었다. 역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간다는 것은 항상 두근거리는 일이다. 물론 이 여행의 목적은 채집과 생물 관찰임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실습을 간다는 생각을 하니 경건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제주공항에 내리니 너무 덥지도 않고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화창한 날씨의 제주도가 보였다. 채집을 하기에 딱 좋은 날이 아닐까 생각을 했다. 우리는 역시나 선발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이 남은 시간이 있었다. 어디로 놀러 가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고, 숙소로 가는 길에 잇는 작은 미로공원에 들릴 정도였다. 학생들끼리 미로 빨리 탈출하기를 팀을 짜서 내기를 했는데 우리 팀은 끝까지 결국 가지도 못하고 예상 외로 발견한 입구로 나와서 더운 날에 미로 밖에서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뿌듯하게 볼 수 있었다.

숙소는 섭지코지 근처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섭지코지를 가기로 했다. 드라마 올인 촬영지로 유명한 섭지코지는 처음 와봤는데, 어린 후배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올인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는 내가 대학을 좀 오래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정도 걸어서 도착한 하얀 등대 밑에는 작은 암반 조간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채집과 관찰을 위해 제주도에 왔기 때문에 내려가서 관찰해보기로 했다. 경사가 가파른 암반 조간대는 Zonation을 잘 관찰할 수 있었다(이때까지만 해도 Zonation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제주도는 현무암이 많아 돌 사이 틈이 매우 많고, 그 틈에 많은 해양 생물들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도착할 때와는 다르게 섭지코지를 돌아다닐 때는 너무 더웠다. 체력이 저질인 우리는 금방 지쳐서 숙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후발대가 도착 할 때까지 장을 보고 저녁준비를 하고 나니 벌써 밤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역시 제주도는 흑돼지!이지만 우리는 질보다는 양이었기 때문에 일반 돼지를 많이 샀다. 숯불에 굽는 고기는 정말 맛있었다. 같이 이야기를 하며 저녁을 먹으면서 잘 알지 못했던 생물학과 분들과도 꽤 친해지고, 조교님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았다.

드디어 채집을 하는 2일째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채집을 준비하고 가기 전에 잠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생물해양학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현이가 zonation을 zoning이라고 말해서 모두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 자기소개를 마치고 조를 짜고 종달리 해변으로 출발하였다. 생각보다 종달리해수욕장은 넓었다. 해변에서 출발해서 바다 쪽으로 걸어가면서 채집을 시작하였다. 작은 돌을 들추는 것 보다 큰 돌을 들추니 정말 다양한 생물 종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아직 생물 종에 대하여 아는 것이 얼마 없어서 이 종이 내가 이미 채집 한

종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서 힘든 점이 있었다. 또 실제로 생물들이 잘 숨어있어서, 나는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박사님들은 훑어보시더니 이것도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게 신기했다. 옆에서 박사님과 조교님이 이것은 무슨 종이다 하고 바로 대충 동정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보던 조간대 생물들의 이름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가장 신기했던 것은 교수님이 체로 물 웅덩이를 훑으면 새우도 잡히고 물고기도 잡히는데 내가 시도 해 보니 그저 해조류 건더기만 떠지고 아무 것도 잡을 수 없었다. 채집을 하는 것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련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채집을 하면서 물이 아직 차 있는 곳까지 들어 갔다.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넓고 경사도 가파르지 않는데 가면서 생물 종들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실제로 공기에 접촉되는 시간이 적은 곳에 사는 생물 종들은 내부가 더 많이 노출되고 외각도 상대적으로 더 얇아지거나 없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직 물이 차 있는 곳에 있던 생물들인 멍게나 등 오랜 시간 대기 노출 시 살 수 없는 종들도 많이 보였다. 채집을 하면서 다른 조들과 흩어져서 생물을 관찰하였는데, 이 때 다른 조들과

생물 종과 수가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서로 열심히 채집 했지만 종이냐 수가 다른 것은 정말로 위치에 따라 생물 종들이 다르게 분포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채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성산일출봉에 올라가게 되었다. 별로 오랜 시간 채집한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힘들어서 지쳐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든 점도 있었다.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올라온 성산일출봉은 위에서의 장관이 정말 좋았다. 내려온 후에 옆에 바닷가가 있어서 잠깐 들렀는데, 이 곳에서도 박사님들이 새로운 것들을 지나가면서 알려주시는 게 정말 재미있었다.

숙소에 돌아와서 채집한 생물들을 분류하였다. 고둥이나 조개 같은 경우는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서 관찰았지만 몇몇 연체동물들은 벌써 부패가 시작되는 것 같아 보였다. 특히 내가 귀엽다고 좋아하는 군소는 외계생명체처럼 점액을 내뿜으면서 쪼그라져서 괴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작년 환경해양 수업에서는 메탄올에 바로 넣어 고정했었는데, 이번에는 여건이 안되어서 그러지는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동물이 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애를 먹었다. 옆에서 조교님들과 박사님들이 도와줘서 분류를

끝낼 수 있었다.

그날 밤은 저녁에 회를 많이 먹을 수 있었다. 조교님들이 멀리까지 다녀와서 더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회도 먹고 게를 넣고 끓인 게도 먹고 박사님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밤을 보냈다. 다음날 딱히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도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2박3일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것도 알아가고 뿌듯하게 집을 돌아올 수 있었다. 라고 기행문을 마치고 싶지만,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가 뜨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 어쩐지 아침에 나올 때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더니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쯤 되어서 모든 항공편이 결항되었다. 결국 공항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제주도에서 하루를 더 보내게 되었다. 다음날 수업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은 제주도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아진 제주도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3박 4일이 되어버린 생물 해양학 필드는 과제와 시험으로 지친 우리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학기 중에 서울을 벗어날 기회는 정말 없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공짜로) 제주도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이 많은 인원을 이끌고 필드를 기획하고 안전하게 끝마쳐주신 교수님과 조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지구환경과학부 10 김성중>

3-7. 제주도 종달리, 해양생물의 보고(寶庫)



<3조 단체사진>

2014년 1학기 생물해양학 및 실험을 수강하면서 제주도로 야외조사를 다녀왔다. 원래 예정된 일시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이었으나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하여 12일에 돌아오게 되었다. 제주도로 처음 떠나던 날은 9일 금요일이었고, 금요일에 수업이 있었던 나와 의준 오빠는 후발대로 네 분의 조교님들과 함께 제주도로 출발했다. 오후 5시에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약 1시간 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오후 8시가

넘어서야 렌터카를 이용해 숙소가 있는 성산포에 다다랐다. 숙소로 향하면서 마크에 들러 고기와 소시지 등 바비큐를 위한 재료를 사 갔다. 성산포에 있는 해돋는마을 펜션에 도착했을 때에는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의 저녁 식사가 끝난 뒤였다. 그러나 먼저 있던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주고 먹을 것을 챙겨 주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밤이 늦도록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아침 9시에 제주도로 출발한 선발대에게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미로공원에서 빨리 탈출하는 내기도 하며 재미있게 놀았다는 것을 듣고 매우 부러웠다. 남은 시간 동안 나도 제주도에 와서 알차게 즐겨야겠다고 생각했다.

둘째 날 숙소 앞에서 9시에 모두 모여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 숙소에서 5분도 안 걸려 '오조 해녀의 집'이라는 식당에 도착했다. 메뉴는 전부 통일하여 전복죽을 주문했다. 전복죽 색깔이 약간 초록색을 띠는 것 같아 맛이 염려스러웠는데, 한 입 먹고 나니 내장 맛이 씹쓸하게 남아 매우 맛있었다. 한 그릇을 든든히 비우고 나서는 숙소에 다시 들러 생물 채집을 위한 준비를 했다. 차를 타고 오래 달리지 않아 약 오전 11시경에 종달리 해변에 도착했다. 종달리 해변은 주로 암반 조건대로

이루어져 있었고 약간의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종달리 해변은 유명하진 않지만 우리 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종이 나타난다고 들었다. 실제로 이곳에서 해양생물을 채집하면서 처음 접하는 생물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생물이 거기서 거기 아닌가 했던 나의 생각이 큰 오산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조개나 게, 미역 등의 해조류 밖에 생각하지 못했으나, 얇은 바닷물에 잠긴 돌들을 뒤집어보자 처음 보는 생물을 만날 수 있었다. 돌을 뒤집자 납작한 공처럼 생겨서 돌에 딱 붙어 있는 균부도 볼 수 있었고, 돌 틈에 숨어 있다가 화들짝 놀라 게걸음을 치며 도망가는 작은 게들도 볼 수 있었으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기 힘든 실지렁이도 볼 수 있었다. 돌을 뒤집을 때마다 꿈틀거리는 생물들을 보는 것이 신기해서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돌들을 다 뒤집으며 다녔다. 매우 큰 암석의 틈에서는 젤리처럼 물렁해 보이는 주황색의 멍게 종류를 발견하였는데, 평소에 자주 볼 수 있었던 멍게와는 조금 다르게 생겨서 다른 생물인 줄 알았다. 또 암석의 틈마다 연한 베이지색의 딱딱한 거북손들이 뻑뻑하게 들어차 있었다. 거북손도 채집하고

싶었으나 암석에서 떼내는 것이 매우 힘겨워 채집하지 못하였다. 박사님께서서는 거북손의 이러한 능력을 연구하여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그만큼 거북손의 접착 위력은 엄청났다. 제주도에서 처음 본 군부도 맨손으로는 돌에서 떼어내기가 힘들 정도로 돌에 딱 붙어 있었다. 가장 채집하기 쉬운 종은 고둥들이었다. 고둥은 암석 옆에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조간대 위에 널려 있어 줍기만 하면 채집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잡아온 새우 종류와 고둥 속에 숨어 있는 집게 종류, 주먹만한 소라 등도 구경하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약 2시간 동안 해안가를 휘저으며 온갖 생물을 채집하였다.

이렇게 채집한 종은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점심을 먹고 난 뒤 숙소에서 1차적으로 분류를 시작했다. 숙소 앞의 마당에서 각 조마다 연체동물, 절지동물, 기타 등으로 분류를 맡았다. 우리 조는 고둥과 같은 연체동물을 맡았다. 제주도에서 채집한 생물들을 서울에 있는 학교로 운반할 때까지 부패를 막기 위해, 연체동물을 각 종별로 구분하여 나눠 담고 알코올을 부어 고정시켰다. 오전에 채집한 생물들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벌써 썩기

시작하는 냄새를 풍겼다. 생물들이 더 부패하기 전에 재빨리 알코올을 첨가해 보관하였다. 이렇게 보관한 생물 종들은 학교로 운반하여 다음 수업시간부터 동정을 하고 자세히 관찰해볼 수 있었다. 오전에는 바닷가에서 생물을 채집하고, 오후에는 성산 일출봉에 들러 정상까지 올라갔다 숙소로 돌아오니 하루 종일 제주도 바람을 맞은 몸이 매우 지쳐있었다.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과 거실에 모여 TV를 보다가 모두 피곤한지 1시간 동안 짧은 잠에 빠졌다. 저녁 먹을 때가 되어 일어나니 싱싱한 회가 준비되어 있었다. 회와 매운탕을 먹으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주도에서의 둘째 날이 끝나갔다.

셋째 날,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공항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보였고,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날씨가 이상하다 싶었더니 기상 상태로 인해 오전부터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전광판에는 결항, 지연이라는 글자가 줄줄이 나타났다. 기상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상태여서, 우리 일행은 안전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다음 날 비행기를 타기로

결정했다. 조교님들이 매우 수고하여 렌터카를 다시 빌리고 숙소도 새로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었으나 불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예정에 없던 제주도에서의 하룻밤이 더 생겨났다. 이틀 후 시험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일정에 변경이 생겨 곤란한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갑자기 생겨난 하루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큰 문제 없이 다음 날 돌아올 수 있었다.

2박 3일에서 3박 4일이 되어버린 제주도의 야외조사는 종달리 해변에서 만난 다양하고 새로운 해양생물들뿐 아니라 함께 간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도 주었다. 이런 기회가 한 번뿐이라는 것이 매우 아쉽다. 생물해양학 및 실험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즐거운 시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의 야외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교수님과 박사님들, 조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지구환경과학부 11 김지은>

3-8. 제주도에서 라면...먹고 갈래?

제주도는 설렘이 가득한 섬인 것 같다. 이번이 4번째 제주도 방문이지만, 그 동안 제주도를 왔던 경험으로 보아도 늘 새로운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학교 수업에서 함께 제주도를 간다는 것도 제주도에 대한 설렘을 더 크게 만든 것 같다. 다행히 날씨도 너무나 좋았고, 나는 미리 선발대로 오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도 넉넉한 편이었다. 김포를 떠난 지 약 50여분 만에 제주도에 도착했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제주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늘 지내던 곳을 떠나와 낯선 곳에서 낯선 공기와 낯선 바람을 맞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새롭고 즐거운 일이지만 이번에는 '생물해양학' 수업의 수강생으로서 제주도를 방문한 것이다 보니, 그 동안의 배움과 제주도를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나는 2박 3일, 엄밀히 얘기해서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하루를 포함한 3박 4일 간의 제주도 생활 동안에 제주도의 생태계 서비스를 몸소 체험한 것 같다. 그 동안 생태계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점점 그

중요성이 더해질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것을 글로만 배워왔다면, 제주도에선 직접 체험해보고, 느낄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가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제주도에선 직접 경험한 생태계 서비스가 글을 통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째 날 점심으로 먹은 갈치조림>

선발대로 도착한 우리는 숙소가 있는 종달리 해변에 가기 전까지 제주도를 구경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었다. 마침 제주도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고,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제주도에선만 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을 보고 싶어 하였고, 파란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섭지코지'를 구경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으니, 제주도에 오면 꼭 한 번은 먹어봐야 한다는 갈치조림으로 점심을 먹었다. 평소에는 잘 먹지 않던 생선도 제주도에선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았다.

섭지코지는 숙소인 종달리 해변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구경하기에 더 좋았는데, 같이 간 후배들은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옛날에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올인'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 복학생의 서러움을 간직한 채 도착한 섭지코지는 제주도의 맑은 날씨 덕분에 더 아름다워 보였다. 살짝 덥다고 느껴 질 정도의 날씨여서 해변 산책로를 찾아 걸어가는 길이 조금은 힘들었지만, 제주도를 대표하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도 가볍게 걸어갔다.

언덕을 가로질러 해변 산책로에 다다르니 멀리서도 그 속이 흰히 들여다 보이는 바다가 넓게 펼쳐져서 파란 하늘에 기대어 있었다. 바다 근처로 오니 바람도 시원하게 불었고, 무엇보다 보는 것 만으로도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평소에도 여행을 가고, 멋진 풍경을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 날의 제주도는 너무도 아름다웠던 것 같다.



<섭지코지에서>

멋진 풍경에 매료되어 사진을 찍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바다와 자연이 주는 멋진 경치만으로도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을 보니, 이 또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이 아닌가 싶다. 제주도의 첫 날 일정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눈에 가득 담은 뒤, 본격적인 제주도 탐방을 준비하며 해가 저물었다.

제주도에서 맞은 두 번째 날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얼른 일어나 제주도 해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전복죽을 먹고, 종달리 해변으로 채집을 나섰다.

종달리 해변은 제주도에서도 특히 생물종이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여태까지 책에서만 보아오던 다양한 해양 생물을 직접 채집하고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곳이다. 아쿠아 슈즈, 채, 채집용 장갑 등 안전장비와 채집 장비를 갖추고 본격적인 채집을 시작하니, 정말로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주로 채집하려고 했던 연체동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균부류, 해조류, 갑각류 등 정말로 많은 바다생물들을 채집할 수 있었다.

특히, 수업에서 배운 것처럼 돌 아랫부분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었고,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신만의 서식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렇게 바다는 다양한 생물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해주고, 서로 다른 종의 생물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다. 바다와 생물이 서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제주도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생태계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자원,

아름다운 경치, 시원한 바람뿐만 아니라, 많은 생물들이 생태계가 주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으면서 생존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태계의 관점을 가지고 제주도를 마주하였더니 그 동안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새삼 자연의 위대함을 깨우칠 수 있었던 것 같다.

<지구환경과학부 10 안호석>

3-9. 잊지 못할 제주도 채집 여행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우리는 2박3일을 예정으로 제주도 야외조사를 다녀오게 되었다. 첫날인 5월 9일 금요일, 아침 일찍 인천공항에 모여 출발했다. 40분쯤 갔을 때, 파란 남해의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고 창문으로 일렁이는 남빛 파도를 멍하니 계속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내 좀 더 열은 청남색, 초록색 등 다채로운 제주의 바다를 맞이할 수 있었다. 날씨가 무척이나 맑아 바다 또한 빛깔이 굉장히 선명했다.

제주에 도착하고 공항에서 나와 우리는 갈치조림으로 맛있게 점심을 먹은 뒤 드라마 '올인'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섭지코지로 향했다. 섭지란 재사(才士)가 많이 배출되는 지세라는 뜻이며 코지는 곳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이라고 한다. 넓게 펼쳐진 풀밭을 지나서 나무 계단을 오르고, 하얀 등대가 있는 전망대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경치는 정말 근사했다. 날이 상당히 더워서 조금 고생을 했지만 등대 위는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었다.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건너편 절벽에서는 주상절리를 관찰할 수 있었고 바다 속에는 해조류가 바둑판처럼 바닥을 거뭇거뭇하게 수놓고 있었다.



<섭지코지에서 찍은 바다>

등대 전망대를 내려와서 직접 기암괴석 아래로 걸어서 내려갔는데 파도로 인해 바위 위로 밀려 올라온 해조류를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전북쪽으로 속을 든든하게 채운 뒤 방형구, 워터슈즈 등을 차에 싣고 생물 채집을 위해 종달리 해수욕장으로 출발했다. 종달리 해수욕장은 모래사장과 암석이 모두 있어 다양한 생태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모래 해변에서는 중간중간에 있는 커다란 돌을 뒤집어 그 밑에 있는 고둥 (총알고둥,

눈알고둥, 포도고둥, 뱀고둥 등)을 잡거나 돌 표면에 붙어있는 균부를 떼어내었다. 가장 많이 잡은 것은 돌 아래에 사는 납작게, 풀게, 무늬발게, 그리고 아주 작은 엽낭게 등의 게종류였다.

물이 차있는 웅덩이 안에는 작은 새우, 치어들이 있었는데 물을 마구 밟아서 한쪽으로 몰아넣은 다음 바구니로 채집하는 신박한 방법으로 잡았다. 암석 쪽으로 올라가서는 바위 표면에 붙어있는 거북손을 떼어내고 (따개비와 말미잘은 너무 단단히 붙어있어서 온전한 모양으로 뗄 수 없었다) 갯강구, 성게, 그리고 군소 등을 잡았다. 작년 가을, 서해 태안에서 생물 채집한 적이 있는데 그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주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생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채집한 생물들을 전부 임시로 보관한 뒤 점심으로 해물짬뽕을 먹고 성산일출봉으로 향했다. 완만한 경사에 계단까지 있었지만 올라가는 길이 조금은 힘들었다. 그러나 정상에 도착해서 내려다 본 경치는 지쳤던 것을 잊게 해줄 정도로 좋았고 시원했다. 전날과는 달리 날씨가 흐려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는 없었지만 탁 트인 바다와 오밀조밀한 제주의 해변을 볼 수 있었다.

다시 숙소로 돌아와 채집한 샘플들을 연체동물, 절지동물 등으로 커다랗게 분류한 뒤 플라스틱 병에 담고 표본이 잠길 정도로 알코올을 부어 보관했다. 이 날 저녁은 문어회, 갈치회, 광어회, 성게회, 해물탕으로 배를 채우고 다음날 다시 서울로 향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다음날의 날씨는 무척이나 불길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여기가 제주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려는 듯 무서울 정도로 세차게 불었다. 공항에 도착하니 역시나 출발하지 못한 사람들로 북적 였고, 대부분의 비행기가 결항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그날 출발하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제주에서 지낸 뒤 출발한지 3박4일 후인 월요일,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지구환경과학부 12 황지운>

3-10. 제주도의 숨결과 하나가 되어

2014년 5월 9일 금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조금 늦었지만 내가 제일 늦은 사람이 아니라 참 다행이었다. 공항에 도착해 아침에 먹었던 밥이 소화가 잘 되지 않았는지 배가 살살 아파왔다. 김포공항 화장실에서 볼일을 해결하자 제주도로 출발할 시간이 되어 조교님으로부터 항공권을 받고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로 이동하였다. 잠을 덜 자서 그런지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해양 생물 종이 다양하다고 알려진 이 제주도를 속속들이 느끼기 위하여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찾아 다녔다. 또 제주도의 맛 집을 찾아가 제주도에서 잡힌 해양 생물들을 섭취함으로써 온 몸으로 해양 생물의 맛과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첫째 날 가본 곳 중 단연 최고는 섭지코지였다. 섭지코지는 암반 조간대 환경으로 zonation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바다와 인접한 곳부터 그림 1의 잔디밭까지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분포해 있었다. 또한 바다와 인접했기 때문인지 엄청난 해풍(海風)이 불고 있었다.



<섭지코지에서>

5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날씨는 상당히 후덥지근했는데, 등대에 올라가보니 더위는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시원함만 내 주위를 맴돌았다. 선발대였던 나는 일찍이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교수님과 박사님, 조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구운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나는 고기를 굽지 않는 대신 소시지를 구워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배부른 식사였다.

둘째 날은 드디어 생물 채집을 하러 가는 날이었다. 종달리에 도착하여 생물 채집 집기들을 배분 받고

해변으로 나갔다. 종달리 해변은 그 환경부터 정말 다양했다. 모래 사장부터 암반 조간대까지 다양한 지형이 분포해 있었고 그에 따라 분포한 생물들도 다양했다.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새로운 종이 눈에 띄었고 바위 하나에 2~3 종류의 생물이 달라붙어 있는 걸 보면 단위면적당 생물 종 수 또한 많았다. 주연 누나, 지운이 그리고 조교님과 함께 조를 이뤄 생물 채집을 실시하였다. 바위에 붙어 있는 '군부'를 끌로 긁어 내 채집하고 바위를 들출 때마다 여기저기로 도망가는 게들을 잡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비록 무서워서 게 한 마리도 잡아보지 못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뱀 고동'을 발견하고 채집한 일이다. 전혀 고동 같지 않은 생김새에 마치 달팽이 껍질을 바닥에 붙여 놓은 듯한 뱀 고동의 모습은 참으로 신기했다. 하지만 정말 바닥에 강하게 붙어 있는 만큼 떼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온전한 모습으로 떼어내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종달리 채집 이후에는 숙소와 아주 근접한 성산일출봉을 등반했다. 성산일출봉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등반한 게 마지막으로 이번 야외조사 때 실로 오랜만에 등반한 셈이 됐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막상 꼭대기에 도착해도 한치 앞도 볼 수 없었는데 이날은 날씨가 흐리긴 했지만 눈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은 아니어서 다행히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성산일출봉에서>

제주도에 도착하고 제주도가 삼다도라고 불리는 이유를 뼈저리게 느낀 것이, 삼다(三多)에 해당하는 것 중 다른 것은 몰라도 '바람' 하나는 정말 강했기 때문이었다. 강풍이 시도 때도 없이 불어서 머리가 날리기 십상이었다. 하도 바람이 심하다 보니, 항상 이렇게 강풍이 불면 이 섬에 어떻게 생물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역시 우리가 제주도에 도착해서 느꼈던 바람은 예사 바람이 아니었다. 제주도에서도 특히나 심한 바람이었고 그로 인해 집으로 가는 비행기가 결항되고 말았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바쁠 시기에 제주도 야외조사를 가게 되어 마음 놓고 배우고 즐기지 못해 아쉬웠다. 비록 예상치 못하게 1박을 더 하긴 했지만 3박 4일 동안 생물해양학 수강생들(특히 생명과학부 누나들)과 친해져서 좋았다.

<지구환경과학부 12 윤정현>

4. 채집 후 수업 활동



<표본 전시회 날 찍은 단체 사진>

제주도에서 채집한 생물 중 게, 군부, 고둥을 각 조에서 한 분류군씩 맡아 표본을 제작해 보았고, 종강하는 날, 표본 발표와 함께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친 기념으로 피자 파티가 열렸었다!!

4-1. 1조 (게류)



<1조: 전승연, 백주원, 윤지영, 황지운, 윤정현>

1 조에서는 제주도에서 채집해온 게를 납작게, 풀게, 무늬발게, 엽낭게, 부채게류로 동정하고 세계대전과 SBS 프로그램 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세계대전"과 "납작게"로 스토리를 꾸며 보았다.



<1 조 표본 발표 중>

4-2. 2조 (군부류)



<2조: 이은주, 박의준, 안호석, 김지은>

2 조에서는 제주도에서 채집해온 군부를 털군부, 군부, 연두군부, 벌레군부로 동정한 후, 각 종마다 패각을 띄어내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고정시킨 후 전시하였다.



<제주도에서 채집한 군부류와 보라성게>



<2 조 표본 발표 중>

4-3. 3조 (고등류)



<3 조: 신지현, 최주희, 조우현, 김성중, 이흥은>

3 조에서는 작년과 올해 제주도에서 채집해온 고등을 동정한 후 shell 과 soft tissue 를 분리하고 shell 만 고정하여 종 별로 나누어 전시하였다.



<2013년(↑), 2014년(↓)에 채집한 종달리 고둥류>



<3 조 표본 발표 중>

5. 추억 한 장, 두 장



선발대끼리 한 컷



첫째 날 바비큐 파티



바비큐 파티 중



2박 3일간 머물렀던 숙소



둘째 날 아침으로 먹었던 전복죽



주원이 신났다



요조숙녀의 집 앞에서 ㅎㅎ



본격적인 채집에 앞선 자기소개 시간



채집 전 준비운동ㅎㅎ



채집을 위한 조 나눔



채집 전 단체컷



빠질 수 없지!



2조 단체사진



1조 단체사진



3조 단체사진



채집 중인 1조



채집 중인 3조



채집 중인 2조



나도 저거...



왜 왜??



히히 많이 잡았다



채집 중 단체컷



선생님과 박사님들



옷 맞춰 입은 기념ㅎㅎ



채집 후 꿀맛 같은 점심식사



해양저서생태학 연구실 멤버들



맛 집에서 먹은 짬뽕



탕수육은 왜 안 나오지..?



카레 맛 나는 탕수육



제주도하면 성산일출봉



돌하르방 내건데..?



해녀의 집 앞 돌 위에서



올라가는 중



웃~차



정상에서 단체컷



어? 뚜..뚜두뚜두..뚜두뚜두



해녀의 집 앞 단체컷



철쭉 철쭉이가 이게 뭐라고 했는데..?



둘째 날 저녁식사



사실.. 사진 찍고 쯤~금 더 놀았어요ㅎㅎ



아침엔 맥모닝



고기국수 마이짱



모두다 베이컨 에그 맥머핀



맥모닝 먹고 산책 중



어? 예쁘게 나왔다



남자들끼리

101



조교들이 제일 신남

102



집에 가고 싶어...



3박 4일의 일정 모두 끝!!

마지막으로...

채집 가는 날이 결혼식이라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아쉬웠던...



지영이의 결혼식 사진! 껍

<사진: 박진순/이은주, 글: 전승연>

2014년 봄학기

생물 해양학 및 실험 (제주도 현장실습)

발 행: 서울대학교 해양저서생태학 연구실

발행일: 2014년 6월 11일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지구환경과학부 25-1동 308호

Tel. 02-880-6750 Fax. 02-872-0311

Homepage. <http://benthos.snu.ac.kr>